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행정·정치력 검증된 인사 추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 나주서 회동

지역 위상 강화·현안 해결 한목소리 내기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행정력과 정치력을 갖춘 인물을 중앙당에 추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집력 강화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 내부에서 크게 약화된 지역 정치권의 위상도 되찾아 가기로 했다.

지난 16일 김동철 광주시당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최인기, 유선호, 이윤석, 김영록, 이낙연, 김재균, 강운태 의원 등은 나주에서 회동을 갖고 정치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지역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광주시장, 전남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 지역 20명의 의원들이 행정력과 정치력이 검증된 인사를 중앙당에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당이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에 앞서 지역 민심 등을 적극 반영해 적절한 인사를 추천,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추후 회동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의 행보는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내년 광역단체장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되는데다 기존의 후보군보다는 '제3의 인물'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도 읽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당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를 높여가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주류세력의 일방통행과 지역 정치권의 결집 부족 등으로 민주당의 핵심 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의 목소리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원총회 등 각종 현안 회의와 관련, 지역 의원들이 사전 회동을 통해 의견을 조정하는 등 결집력을 강화, 민주당 내부에서 지역의 목소리와 지역 정치권의 위상을 높여 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참여 문제와 관련, 지역 의원들은 일방적인 장외투쟁보다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견제하는 한편 장외투쟁을 통해 미디어 관련법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무기력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목소리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복당만 이뤄진 강운태, 이윤석 의원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지역 위원장 임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인기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은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이기 보다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며 "이 같은 의견은 광주·전남의 미래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충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선친 묘소 찾아 술 올리는 반기문 총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부부가 17일 오후 고향인 충북 음성군 원남면 상당1리 행치마을을 방문, 선친 묘소를 찾아 술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신당' 창당 선언…야권 격동 예고

참여정부 인사 주축…연말 창당 공식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판도 요동 가능성

친노 세력 일부가 17일 창당을 공식 제안, '친노 신당'의 깃발을 올리면서 민주당 등 야권의 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친노 정서가 강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1천642명은 17일 창당 제안을 통해 연내 창당과 2010년 지방선거 참여를 선언했다.

창당 세력들은 이날 창당 선언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했다"며 "국민은 더 늦기 전에 새로운 정치가 세상을 바로 잡기를 바라고 있다"고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지만 친노 신당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지는 미지수다.

당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안희정 최고위원, 유시민, 김두관 전 장관, 백원우 의원 등 친노 그룹의 대표 인사들이 신당 창당 및 참여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 전 대통령의 '통합 유지'와 배치되는데다 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노 신당이 결국 과거 개혁당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친노 신당의 창당에 따라 민주당의 통합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신당 창당과 관련,"현시기의 정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정당의 출범이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일"이라며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단일한 대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노 신당이 광주·전남지역에 뿌리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분열의 추억'이 생생한데다 광주·전남에서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맞설 제1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신당의 독자세력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

30년전 'DJ 사형 구명' 알렌 前보좌관 병문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을 했던 미국 레이건 정부의 리처드 알렌(사진)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이 17일 오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 김 전 대통령을 병문안했다.

알렌 전 보좌관은 이날 오전 11시 병원 20층 대기실에서 이희호 여사를 만나 20여분간 얘기를 나눴다.

이 여사는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알렌 전 보좌관은 김 전 대통령과 인연을 소개하며 쾌유를 빌었다.

알렌 전 보좌관은 김 전 대통령이 1980년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구명운동을 해 김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연이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주 투자기업 "기업환경·행정서비스 만족"

150곳 만족도 조사…인력 수급·교통환경은 '애로'

광주 지역 투자 기업들은 기업환경과 행정서비스에 만족한 반면, 기술인력 수급과 산단내 대중교통 이용 등에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지난 5월4일부터 한달여 동안 민선 4기 광주 지역에 투자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기업 실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다. 설문 내용은 기업현황·투자동기·기업환경 등 15개 항목이다.

조사 결과 평동·첨단산단 등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대해서는 82%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다소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3%에 그쳤다.

그러나 '산업인력의 수급이 용이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33%에 그쳤으며 51%는 보통, 18%는 열악이라고 답해 인적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공장용지 분양 및 입주계약 지원에 대해 73%, 공장설립 및 인·허가 지원에 대해 83%가 만족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다만, 자금지원과 세금감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각각 38%, 41% 수준이어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광주 지역 투자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주거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76%에 달한 반면, 교통환경과 의료·문화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답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세계 곳곳 자연재해…곡물 수확량 크게 줄어

전남도 '신선 농산물' 수출 마케팅 총력

전남도가 최근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를 상대로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식량 상황과 수확 전망 보고를 분석한 결과 올해 곡물 예상 수확량은 22억85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22억1천700만t 보다 850만t에 비해 3.4% 낮은 것이다.

수확량이 예상보다 낮아진 것은 전 세계 두 번째 곡물 생산국인 인도가 가뭄과 태풍 등 대형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고, 중남미와 중국·인도네시아 등도 올해 작황이 크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80년 만의 최대 가뭄으로 벼 경작지 25만7천ha 가운데 26%인 6만6천ha에서 모내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권일기자 cki@

日서 또 6.5 강진…쓰나미 경보 발령

일본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다.

17일 일본 기상청은 오후 7시 11분 일본 남서지역 오키나와현 부근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한 후 쓰나미 경보가 발령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연안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10km라고 밝혔다. 또한 해일의 높이는 최대 50cm로 예상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면서 일본 열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연합뉴스